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구 경주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 FAX: (0343)470-3116

## 법공양 페이지

나는 열심히 땀 흘려' 하고 믿고 맡겨 놓는 생활을 꾸준히 해나가신다면 참 으뜸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정진 아닌 정진을 참이 없이 해 나가세요.

### 한밤중에 두려움에 휩싸여...

**문** 저는 스물 여덟살의 고시생입니다. 스님 말씀은 언제나 기쁘기 지 않는 감투수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가 잘 안될 때도 있지만, 스님 말씀대로 성실히 '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밤중에 갑자기 심한 두려움에 휩싸이곤 합니다. 작년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성당에 다니면서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스님 말씀을 듣고 세계관과 종교관에 많은 변화가 왔고, 요즘은 모두 '주인공'에게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두려움이 흔히 느끼는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쩔 방도가 없어서 이렇게 감히 여쭙고 있습니다. 육신도 그냥 두려고

# 안팎 어디도 머무르지 않아야 참선

### 15면에서 계속

그렇다고 이런 체험을 했으니 내가 공부 잘 한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근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희미하게나마 보여준 것이니 더욱 지극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해해해한다면, 그것은 내 안의 근본을 무시하는 것이 되니까요. 근본에 감사하는 마음 잊지 말고, 더욱 정진하기를 바랍니다.

### 완전한 깨달음의 끝

**문** 저는 현대불교신문을 통해 '길을 묻는 이에게'를 보고 마음공부를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스님, 제가 궁금해하는 질문은 다름이 아니오라, 큰스님 말씀대로 우리는 모두 주인공에 의해 살아왔고, 살아가고 또 미래에도 살아가는 거라면 지금 이대로 그냥 그냥 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노력도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냥이라는 얘기입니다.

가끔 저는 나의 태초와 나의 끝, 즉 우주의 태초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주계에 여러 혹성들도 많은데 왜 하필 지구에 왔는지도 궁금합니다. 다른 혹성에도 생명체들은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곧 주인공이라면 애초에 나는 무엇이었으며, 또 공부를 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 한다면 그 끝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스님께서는 먼 곳을 보지 말고 그것마저도 주인공에 놓으라고 하시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궁금증이 떠오르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이 답답합니다.

**답** 우리들은 몸체, 즉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보이지 않는 50%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몸체를 형성시킨 장본인이 누구냐 하는 거죠. 또 채소를 심는데 그 종자는 무엇이나, 종자가 없다면 물질이 나오지를 않는데 그 물질이 나와서 다 먹고고도 또 그 물질이 종자를 이루어서 심어서 또 먹게만 들어가는 과정을 가만히 볼 때에 우주천하, 삼천대천세계가 그러하다 이겁니다. 내 가정, 내 몸뿐만 아니라 조상, 자녀들, 사회, 모든 전체를 가르치고 이끌



그림 · 최주현

혼합이 돼서 전부 빈손이 돼 버려요. 그렇게 하면 산 사람한테도 영향을 끼치는 것 없이 오히려 좋은 일만 생기죠. 또 땅에 도로를 낸다는 거 뭐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산소를 파내라 한다면, 이걸 예를 들어 보세요. 그런 경우에 묘지를 파내고 이장을 한다 이럴 때도, 내 형제라고 하더라도 그렇고 부모라고 하더라도 그렇고 남이라고 하더라도, 여지껏 모든 걸 지켜온 데 대해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지껏 지켜줘서 감사하구나.' 흙이 지켜줬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흙속에 묻혀서 지켜졌으니까.

## 일상 관하고 믿고 맡기다 보면 생활속에서 참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흙의 은혜를 받은 것을 갖기 위해서 물 한 그릇에, 어떤 사람은 떡 한 그릇을 해 놓고... 그것도 몇가지가 있습니다. 이 도리를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물 한 그릇을 안 떠라도 바다를 갖다 놓고 할 거고, 또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갖다 놓고 지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한해서는 물·향·초 또는 땅의 고마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게다가 산 사람들이 그걸 파낼라니 모두 힘들고 그러니까 막걸리 한 통, 그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들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주하게끔 북어 한 서너 마리 가지고 가서 놓고 막걸리도 끼얹고 삼 배 올리고 나서 자기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 놓으면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파내도.

하고 있고, 믿음도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여전히 그렇습니다. 간절하게 가르침을 바랍니다.

**답**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삶의 수레바퀴를 벗어나서, 공기주머니를 벗어나서, 수레가 아니라면은 살 수가 없이 되어있는 상황 속에서 공기가 없어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고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벗어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자꾸 축소시킨다면 너는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너는 항상 중생으로만 살아가. 거지르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나 뭐 다른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좁고 응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조그마한 건 되는데 큰 거는 안될 거다' 요런 생각, 또 '요렇게는 되는데 이런 거는 원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렇게들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이 많아서, 내가 업을 과거에 얼마나 짓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오나? 요런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업 불을 자리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어떤 생각이 입력되었으면 그 입력을 지워버리는 데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가 달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내 마음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일임하고 입력을 한다면, 쉽게 말해서 믿고 거기다 놓으면 그냥 거기가, 즉 말하자면 큰 회사라고 한다면 사원이 수백 명이 있다 하더라도 원자에서 수백 명의 입자로 화(化)해서 들어가서 조절을 하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거죠.

내가 고정돼 있다는 상(相)이 있기 때문에 고통도 있는 겁니다. 내가 없다면 부처님 법도, 가톨릭 법도, 기독교 법도 다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 이외의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한다면 사원이라고 할 수 없겠어요. 다 두고두고 먹고 싶은 대로 다 해먹을 수 없다면 그것은 한다면 사원이라고 할 수 없겠어요.

인간으로 오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인간까지 와서 다시 말로 좌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주인공을 믿고, 모든 아프고 괴로운 것, 공부하는 것, 배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것, 등 모든 것을 다 내 주인공 안에, 거기다 맡겨 놓으세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내 주인공에 다 맡겨 놓고 '당신밖에 할 수 없어' 하고선 법에 뛰어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부드럽게 돌아갈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되는 것 뿐이지, 진실로 믿고 내 안의 근본에 모두 맡겨놓을 수만 있다면 자유스럽게 살 수 있을 겁니다.

# 상구보리 하화중생은 나로 부터 시작을 내가 고정돼 있다는 때문에 고통이 따라

어가는 그 문제는 모든 것이 다 귀결돼서 통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공부해서 해서 쥐고 가지만 해도, 쥐고 가면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살아나가고 또는 사회를 보면서 거기가 말기면은 그게 즉바로 우주법계로 통일이 됩니다. 통일이 돼서 우주법계에서 우리 중(中) 세계의 살아나가는 것을 상세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하는 장본인은 나를 형성시킨 근본, 마음이거든요. 이게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한 여건과 더불어 우주의 근본이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마음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 지구에만 생명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도리로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꿰뚫어 본다고 해도 도가 아니라 했습니다. 보기만 하면 될 법한가? 내가 실질적으로 집어먹을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도록 행을 할 수 있어야지 어찌 보기만 하는데 드라고 하는냐는 얘기입니다. 상대의 속을 훤히 들여다 본다고도 도가 아니며, 가고 올 수 있어도 도가 아니라 했습니다. 과거에 어디서 왔는지를 안다 해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건데다가 못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상구보리 하화중생해야 합니다. 내 몸 속에 있는 그 의식, 마음들을 한마음으로 모아서 요리를 한다면 바깥으로 남을 이익하게 조절하며, 그 마음이

충만하다면 어떤 것이든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여건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가고 오미 없이 나뵈므로써 그게 바로 내가 되면 조절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세계평화도 가져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묵히 한발 한발 걸어가면서 실천하며, 게으름이 없이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 야망을 갖지 않고 통털어 내놓아 어느 것 하나 걸치지 않는, 그래서 내 아님이 없고 내 발 아님이 없는 평발의 도리를 알아야 합니다. 발이 밋밋하고 평면이어서 평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별레 한 마리의 발 하나라도 내 발 아님이 없기 때문에 평발이라고 할 것입니다.

마음공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음공부를 어떻게 해야 나쁜만 아니라 이웃을 이익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도 않으면서, 그저 왔다갔다 하다보면 모든 것이 좋아지고 병도 낫겠지, 그러면 그만 아닌가? 하는 이런 정도라면 공부한다면 병도 못 고치거니와 여러분 몸 속에 있는 중생들도 제도 못할 것입니다. 내 몸은 바로 부처님의 법당과 같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깊이 이해해서 이 법당을 지키도록 하시면서 그 법당 속의 모든 자생중생들을 제도하고, 한마음으로서 조복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근본행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공부는 필연적으로 해야 할 것이지, 하면 좋고 안하면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 조상 산소 이장하러 하는데...

**문** 청명 한식을 맞아 조상님의 산소를 이장하려고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셔야 될 문 제입니다만 모두가 바로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지신(地神)과도 물이 아니라 는 거죠. 흙과 땅을 관리하는 지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흙도 생명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흙에도 생명이 있다는 거 아시죠? 물도 생명이 있고 바람도 생명이 있고 불도 생명이 있고, 그래서 한 데 모여서 동참을 하니까 공기로서 인간을 살릴 수도 있고, 만물 만생을 길러내기도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신도 나요, 목신도 나요. 그러니 조상님의 영혼도 틀이 아니요. 영혼과 영혼을 한 물에다 집어넣으면 한 그릇이지 두 그릇이 아닙니다. 영, 영 해도 틀이 아니요, 영, 영, 영, 영 해도 틀이 아니요, 영 하나를 해도 틀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카바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어떤 때 문제가 아주 큼니다.

그래서 매장을 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에 세 번, 절을 하고 네 번째에 자기 주인공 자리에 '감사합니다!' 하면 모두가

그런데 아주 모르는 사람이나 도리를 완벽하게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스님들께 "이렇게 이렇게 하겠으니 마음 좀 내주십시오" 하고 해라 이겁니다. 자기 거 거기 일치가 되지 않으면 전부 따로 흩어지니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모두들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걸 보면 그걸 모르고도 당하고 알고도 당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모두 다 화합될 수 있도록 마음을 내서 지극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 사불이 되지 않게 하려면

**문** 집에서 참선 전에 운동 겸 마음을 가라앉게 하려고 108배를 하고 있습니다. 향내가 좋아서 향을 피우고 촛불을 켜 놓고 절을 하고 참선하는데 일 배 할 때마다 내 주인공 자리에 놓고 관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그러한 행동도 사불이 될 경우가 있어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나가 고 있구나 참 대단하군요. 자신이 그렇게 밖으로 떠날지 않고 주인공에 하나로 몰아서 한다고 하니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좌선을 할 때 '주인공, 당신만이 당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지극하게 관을 하시고, 낮에도 일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주인공 당신이 이끌어,

가짜로 안목을 밝히는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통이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예시작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43-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어(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